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08.23.(제3768)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363-1452 ·Fax.393-8148
·목사관: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십 자 가

순절(殉節)하는 어둠을 가로질러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타프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리었습니다.

첨탑(尖塔)이 저렇게 높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윤동주 -



기 독 교 아현중앙교회
대한감리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 임 목 사 권 오 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13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입 레 송... 40장(1,3절) ...다 같 이 ※영 광 송..... 5장다 같 이

※예배의부름.....집 레 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시 138:7)

※경 배 찬 송..... 25장다 같 이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나의 입장과 편안함만 앞세우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일에 미루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 독 문... 57번(사편 130편) ...다 같 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가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같이)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
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 도.....김수미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헌 금.....다 같 이

※봉 헌 송... 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목회·봉헌기도.....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집 레 자

구 약 | 창 세 기 4:1-10

신 약 | 갈라디아서 6:2-5

찬 양.... 모퉁이 돌찬 양 대

증 언.....권오진 목사

『등을 질 것인가

등에 질 것인가』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복 의 선 언.....담임목사

※후 주.....반 주 자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 목장모임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40	영 아 부	8
주 일 2 부 예 배	263	유 치 부	11
주일실시간방송예배	45	유 초 등 부	22
목 장 모 임	.	중 · 고 등 부	24
수 요 성 서 연 구	53	청 년 부	17
수요일실시간방송예배	7	예 수 소 망 반	29
금 요 성 령 집 회	45	생 명 의 삶	방학
금요일실시간방송예배	26	주 일 성 서 연 구	방학
합 계	479	합 계	111

다음 주: 창립70주년 나눔콘서트 및 초존캠페인

청년부 여름수련회

8월 21일(금)-23일(주일)

제 주 세 움 교 회

현 금			
주 일 현 금	1,583,000	생 일 현 금	100,000
교회학교현금	183,700	선 교 현 금	870,000
월 정 현 금	3,810,000	창립70주년현금	1,300,000
십 일 조	7,810,000	특 별 현 금	200,000
감 사 현 금	1,400,000		
합 계 17,256,700원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 화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수 - 목 레위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히브리서 강해
오석만 목사

수요성서연구

8월 26일(수)10:30, 송호준 전도사

어? 성경이 읽히지네!

신약 5과

본문: 요한복음 7장 1-10절외

- 금 주 기 도 : 장군복 권사
- 다음주기도 : 홍석은 권사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박지연 전도사

방 학

중예배당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 추 기 도 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초 등 부 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8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김선옥 구용연	김진태 이미옥 이재화 홍석은 오정규 조은지
안내위원	이해순	
강단헌화	(곽찬웅 한애선) 차상옥	
수납위원	김동수 심영관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조규성 김명훈 이성호	

지난 주일 증언

“밀쳐내는 세상, 맞이하는 사랑”

구약 사무엘상 1:27-28

신약 마태복음 19:13-15

설교 : 권오진 목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함께 기도하고 논의하여 여러 기념행사를 기획하여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립기념주일에배, 아프리카 가나 판테아크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6K for water 캠페인, 목장별 이웃사랑 나눔프로젝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30일 나눔콘서트와 초존 캠페인, 그리고 9월 5-6일 전교인 수양회를 경기도 가평우리마을에서 갖습니다.

이런 여러 기념행사를 기획하면서 기념사업위원들의 바램은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우리만의 기념행사가 아닌, 이웃과 함께 나누고,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더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2주 후에 진행되는 나눔콘서트와 초존 캠페인은 아프리카의 취약국가, 특별히 우간다라는 나라의 아이들을 돕는 아동결연 캠페인입니다.

이번 콘서트와 캠페인은 월드비전과 함께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선한 사업을 위해 여러 기독교 NGO들을 파트너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규모있는 선한 사업들을 NGO들과 함께 펼쳐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월드비전일까요. 월드비전과 함께 일하는 것은 월드비전을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아 실제적으로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4년 6개월간 월드비전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현장의 사업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취약지역에서 벌이는 사업의 성과와 변화의 증거들, 특별히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선한 사업에 동참하며 후원자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800명의 직원들이 어떤 신앙과 사명감으로 일하는지를 보았습

니다. 6년 연속 한국 NGO 신뢰도 1위를 하고 있는 투명한 기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중한 후원금과 헌금이 함부로 쓰여지는 것, 누구보다도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나눔콘서트와 초존 캠페인도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들

여러분, 우리는 왜 취약지역의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와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 속 어린이>(The Child in the Bible)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여러 경우 어린이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은 어린이 사무엘에게 임해서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장차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어 내십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의 집으로 전쟁포로로 끌려가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병의 병을 고침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장교의 치유가 아니라 이것은 아람과 이스라엘,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의 국제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무명의 여자 전쟁포로 아이의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을 보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종교적 타락과 사회적 부패를 완전히 갈아엎는 개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에 즉위했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8세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은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가능케 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린이를 그저 사회적인 약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에 기여할 독특한 재능을 가진, 변화의 주체로 여기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천국(하나님의 나라)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의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 축복을 막아서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13절과 15절을 읽어봅시다.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마가복음 10장의 평행구절을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기도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 예수님이 어린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하신 것을 민수기 6장 24-26절의 아론의 축복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6장 24-26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본문을 보면, 이 축복 기도가 진행될수록 더 풍성한 복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기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평강, 곧 ‘샬롬’입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웬햄(G. Wenham)은 이 샬롬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의 부재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웰빙, 건강, 번영, 구원을 의미합니다”. 한 인간의 영혼육의 전인적인 구원, 그리고 한 개인을 넘어선 온 인류의 총체적인 구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완벽한 복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하신 기도도 이 샬롬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이런 평강, 이런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 축복을 막아서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막아선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3-14절입니다.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

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꾸짖었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평행구절을 보면, 이렇게 써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분노하셨던 경우가 언제일까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동물 파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려 할 때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사회 국가적으로 폭력, 착취, 결핍, 분쟁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유니세프(UNICEF),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최신 및 주요 글로벌 통계 자료에서 몇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490만 명의 5세 미만 아동이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영양실조, 감염병 등)으로 사망합니다. (하루 평균 약 13,000명 이상) 전 세계 아동의 10명 중 1명, 약 1억 6,000만 명의 아동(5~17세)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동 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7,900만 명은 광산, 유해 환경 등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4세 아동 4명 중 3명꼴인 약 3억 명이 가정 내에서 정기적인 신체적 처벌이나 정서적 폭력을 경험합니다.

전 세계 아동 6명 중 1명에 달하는 약 4억 6,800만 명이 전쟁이나 무장 충돌이 일어나는 분쟁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분쟁, 폭력으로 인해 고향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아동은 4,300만 명 이상으로 인류 역사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성인 여성 중 5명 중 1명은 아동기에 조혼을 강요당했고, 지금도 매년 약 1,200만 명의 어린 소녀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강제로 조혼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 3명 중 1명은 아동이며, 이들은 성적 착취, 강제 노동, 구걸 등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해외 만이 아니라 국내에도 가정폭력피해아동, 가정 밖 청소년, 범죄피해가정자녀, 자립준비청소년, 장애아동, 다문화가정자녀 등 사회적인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게 그들을 괴롭히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예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 일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밀쳐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길 원하십니다. 교회도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다시 14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해서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 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떤 자격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사회에서 아무런 권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는 이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라고 안하고 그냥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학자는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또 다른 아이들(좀 더 나이먹은)이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일치하는 해석은 이 아이들이 당시 갈릴리 지역의 소외계층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이는 그 가족의 가장이 손을 얹어 ‘축복’함으로써 가족에 공식적으로 소속되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족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바랬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가족에서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아이들일 가능성이 큼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격이 있어 얻을 수 있는 것

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그 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평강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은 예수님이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아는 신앙에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꿈꾸시는 것을 함께 꿈꾸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아이를 품고 살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한 영혼을 품을 때 우리 주님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주 후에 진행하는 캠페인 이름이 ‘초즌’(Chosen)입니다. ‘선택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이 초즌일까요. 보통은 후원자가 후원아동을 선택하지만, 이 초즌 캠페인은 후원아동이 후원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무엇을 선택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줄 후원자를 직접 선택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놓는 놀라운 경험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아프리카 현지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조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붙잡아 줄 사람이 있고, 힘들면 달려와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울타리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즌 캠페인은 단순히 한 아이에게 얼마의 돈을 보내는 행사가 아닙니다. “너도 혼자가 아니야. 나도 너의 울타리가 되어 줄게”라고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밀쳐내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주간 세상이 밀쳐내버린 한 연약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을 맞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살림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 일 조 헌 금 (김한중 김현숙) (이평식 김영숙) (이한표 김순영) (조순형 백문희) (최태성 김지애) (황한규 유경희) (김정행 전차월) (김문기 정건화) (김병일 박경아) (김상길 정윤희) (김선옥 구용연) 김은순 (김정문 유은종) 서성옥 오금복 윤정환 (이동일 최은주) (이정실 황문연) 이한나 전동순 최명순 추화순

월 정 헌 금 (권호진 정장미) (김덕환 최현숙) 김도현 김선경 (김성옥 이현희) 김연혜 김지민 김진숙 (박상근 차용분) (송성범 최명애) (송순호 윤미선) 윤영화 이명애 (이상환 최선규) 이선주 이정임 (임수기 조미숙) 태복수 홍연재

감 사 헌 금

(권호진 조고은) : 한주간 베푸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금주 청년부 수련회 위에 넘치는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오석만 김선아) : 교육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안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본수 송명희) :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앞장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범택 윤옥희) :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간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강정희 : 오늘도 우중이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주일성수 잘하고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하는 어버이로서 기도하는 막중한 임무 감당하게 해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금요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덕환 최현숙)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중 : 지난 한 달간 자녀, 손주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김정훈 이주연) : 앞서 보여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일에도 은혜 주사옵소서.

김진숙 :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중길 임명숙 서진원) : 하나님 아버지! 진원이 영화 캐스팅을 감사 감사드립니다.

송주영 : 1.모든 식구 건강주심에 감사 2.저(강순자)의 허리가 많이 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신영애 : 해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향하시고 축복하시며 지키시는 복을 누리도록 감동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서영 제인 신우) : 주님 늘 함께 해주세요.

이성주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희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영호 : 늘 찬양하는 삶 감사합니다.

임연희 : 준비해주신 곳으로 인도해주시고 이사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장균복 :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올해의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옥자 :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 명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 교 헌 금 윤정환 오혜리 이선주 (이정실 황문연) 총여선교회(선교동역교회 태화샘솟는집)

생 일 헌 금 장균복 정윤희

특 별 헌 금 강단현화故이정렬 창립70주년 서태희 (조영익 태성희)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목장 모임 : 오늘 예배 후, 목장별로 있습니다.
- 청년부 수련회(국내선교) : 오늘까지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는 세대II'라는 주제로 제주 세움교회에서 있습니다.
- 정기 기획위원회 : 29일(토), 낮 12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 창립70주년 나눔콘서트 및 초존 캠페인 : 30일(주일) 오후 1시 30분, 대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전교인수양회 : 9월 5일(토) ~ 6일(주일) 가평우리 마을에서 "위드(WITH)2026"라는 주제로 있으며, 6일 주일예배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 제자양육반 <생명의 삶> 제3기 수강 신청 안내 :
주중반(수요일, 9월 9일 개강) 저녁 7-9:30
주말반(토요일, 9월 12일 개강) 오전 10-12:30
9월 9일(수)까지 교회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2만원, 총 13주 과정)
- 금주 부임심방 : 김재성 이해민 집사

■ 모임안내

- 한나목장 모임 : 오늘 오후 12시 40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 교우동정

- 장례 : 이정렬 장로께서 17일(월) 소천하셔서 19일(수) 장례예배를 드렸습니다.
- 감사 : 오늘 떡을 후원해 주신故이정렬 장로의 유가족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오늘 점심식사 후식과일을 후원해 주신 이운진 성도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청년부 여름수련회(국내선교)를 후원해 주신 전도대, 선교부, 6남선교회, 강정훈 장로, 황인선 권사께 감사드립니다.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로목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담임목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련목회자 송호준
- 전도사 박지연
- 교육전도사 서지수

- 입대 : 송동현 청년이 24일(월) 카투사로 입대합니다.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금요성령집회(8월 28일)

찬	양	메나렘 찬양단
설	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여호수아 3:1-6) 권 오 진 목사

■ 주일아침예배(8월 30일)

대표기도	박 범 택 장로
성경봉독	안 현 수 집사

■ 주방봉사

- 이번 주 : 1초원
- 다음 주 : 1초원

- 소속목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가지회 김정희 김병일
- 반 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